

지금은 지방대학 육성의 시대



김재훈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어느 사회에서든 그 사회 시스템을 유지 존속시키고자 하는 영속성의 힘과 함께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동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과 속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 다른 어떤 시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변동의 힘이 영속성의 힘을 압도하고 있는 형세다.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은 바로 기술의 폭증, 지식의 폭증,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인간의 욕구가 아닐까.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이 급증하는 지식혁명의 시대, 국제적인 장벽이 제거되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범지구적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너무 깊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흔히들 이것을 혁명적인 변화 또는 폭발적인 변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본 방식마저 바꾸도록 요구한다.

변화의 범위는 정치·경제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 및 지식생산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변화의 깊이 또한 깊어서 사회 제도와 구조의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부단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등을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대학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국내 대학들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대학의 경영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연구업적 등이 세계적 수준에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대학이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마

디로 세계수준의 학문적 우수성과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개혁과 구조조정에 맞물려 현재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지원자 수의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과 운영의 어려움, 교육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 등등 그야말로 대학생존의 문제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지방대학이다. 이제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육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방대학에 몸담고 있는 총장으로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특성화는 향후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대학에 동일한 학과를 나열한 채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간 구조조정(통폐합) 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의 역량이 지역발전을 위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립대학간 구조조정은 단순히 대학 입학생 수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즉흥적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대학 유형별 지역별 인력수요 및 교육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이기적인 주장은 지역 내 여러 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할 것이며, 논의 자체를 왜곡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대학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량을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추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혁신 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관계를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와 지방대학, 지역산업체가 상생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몇몇 사업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은 살을 깎는 심정으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만약 사업 수행과 지역혁신의 책임을 지방대학에만 묻고 지자체와 정부는 누가 이기나 뒷짐 진 채 구경만 한다면 이는 지방대학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진정 지역혁신의 중심에 지방대학이 설 수 있도록 대학에 책임과 함께 그에 걸맞은 권위도 함께 부여해주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전체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 역시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개혁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 문제는 대학과 지역사회,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유기적인 상호관련성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